

## 함께 흘린 땀으로 짓는, 아름다운 집

신예은 | 한국해비타트 홍보실 과장

해비타트 봉사 시즌인 여름이 다가왔다. 최소 3개월 전 사전 예약 없이는 봉사할 수 없는 국내 '희망의 집짓기' 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6월부터 11월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짓기 봉사에 참가하려는 기업 및 단체들의 예약이 올해도 짝 차 있다.

해비타트는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해비타트는 1976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 70여 개 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비타트가 짓는 집은 자원 봉사자와 후원자의 땀으로 지어지고, 해비타트에 입주할 가정도 집이 완성될 때까지 현장에서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입주 후에는 건축비를 10년 이상 장기 무이자로 상환하고 이 비용은 또 다른 해비타트 주택을 짓는 데 보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어진 집은 100만 채가 넘고 50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한국해비타트는 1984년도 시작되어 2014년까지 20년 동안 국내외 1만 5,000여 가정에 희망을 전했다. 이는 무엇보다 여러 뜻있는 기업에서 규모 있는 후원을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 건축 봉사로 흘리는 땀은 아름답다

한국해비타트에 참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업비 및 현물 후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의 봉사까지 함께한다. 돈만 전달하고 생색내기형의 진행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땀을 흘리고 체험하는 봉사를 통해 대외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내부적인 임직원 만족도도 높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한국해비타트 봉사 활동의 장점이자 단점은 봉사 활동이 집을 짓거나 고치는, 막노동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거의 여름에 모든 공정이 진행되다 보니 시원한 에어컨에서 사무 일만 하던



현재까지 전 세계에 해비타트로 지어진 집은 100만 채가 넘고, 약 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기업 봉사자들은 현장에 오기만 해도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푹푹 서툰 망치질을 하다 보면 같이 온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다. 마치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함께 받으면 전우애가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한국해비타트의 장기 후원사들은 해비타트 봉사를 신입사원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사내 팀빌딩 또는 포상으로 국내 및 해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자녀의 방학과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7월이나 8월경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동안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해비타트 현장에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보람된 기억을 공유하게 되네요”라는 어느 임원의 소감처럼, 실제 가족끼리 와서 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4

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 볼보건설기계의 한 직원은 작년, 딸이 16세가 되자마자 봉사 현장에 데려왔다(건축 봉사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 가족들이 서운해 해서 이번엔 딸과 함께 신청했어요. 딸이 여기에 함께 와서 제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같이 일하다 보니 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봉사라는 공통점이 무뚝뚝한 부녀 관계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즐거워했다.

무더운 여름날이나 일이 많아 쉴 틈이 없는 날일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해비타트의 건축 봉사 현장에서 흘리는 땀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아름답다.

### ‘사회 공헌은 인간 존엄 지키기’

사실, 임직원의 만족도 이전에 CEO가 앞장서서 봉사에 나설 경우 직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TOP-DOWN’ 방식이 대부분인 기

업이 많아 보통 직원들은 처음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봉사 현장에 끌려오기 일쑤다. 임원들이 현장에서 놀면 직원들도 사진만 찍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임하는 임원과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예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에릭 닐슨 전(前) 사장은 한국해비타트에 두고두고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CEO로 재직하는 7년 동안 개인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내 집짓기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직원들에게도 적극 참여를 독려해 모두 함께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와 구슬땀을 흘리며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 당시 에릭 닐슨 사장의 열정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하는 현지화 전략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 사내는 물론이고 해외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집짓기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해외 본사 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매년 여름마다 온 가족이 봉사에 참여했던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참여가 워낙 많은 해비타트 현장인지라, 회사 유형별 CEO 분석을 취재한 적이 있다. IT와 제조업 CEO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능률을 중요시하기에,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해 함께 온 직원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 CEO는 망치질은 서툴러도 자로 재고, 재료를 준비하는 세심한 일에 뛰어나다. 외국계 기업 CEO는 일을 하기 전 철저한 분담을 통해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것이 특징이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 자체를 즐기려

는 분위기가 강하다. 건설업계 CEO는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도맡아 한다. 참여자 모두가 현장일이 익숙하다 보니 일을 능숙하게 잘하고 현장 분위기도 좋다. 직원 대부분이 자기 일을 찾아서 하고, 자투리 시간에도 쉬기보다는 일하는 걸 선호한다.

CEO의 결단에 따라 강제로 끌려왔지만, 현장에서 직급을 막론하고 함께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단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해비타트 집짓기 봉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그램도 인기다. 처음에는 현지 지역 내에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하곤 하지만 참여자의 만족도가 남다르기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주로 파견되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은 아열대 기후라 시멘트와 벽돌로 집을 만들게 된다. 한국처럼 단열과 난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 한 달에서 보름이면 집 한 채를 짓게 되는데, 우리나라 봉사팀의 경우 한국사람 특유의 근성과 열정으로 현지 일꾼이 일주일에 걸쳐 할 일을 3일 만에 끝내버리기에 대부분의 팀이 집 한 채 현장식까지 끝내고 오는 경우도 많다.

### 건설업 특성 살린 봉사 확산

최근에 와서는 기업의 기부 활동 형태와 범위, 동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대규모 자원 봉사 프로젝트, 물품 기부, 재해 구호 전략, 공익 캠페인 등이 오늘날의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기부 활동의 대표적인 예다. 또한 일회성의 자선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해비타트의 후원 기업은 몇 세대 집에서 점차 마을과 제반 시설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한국해비타트의 희망의 집짓기는 1동에 4세대로 이루어진 다



(좌) 한국번개건축은 해비타트의 대표적인 봉사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걸쳐 대단위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여 집을 짓는다.  
 (우) 2012년 아이티 지진 복구 사업 현장.

세대 형태라, SK나 대한주택보증은 아예 40세대 이상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2000년부터 국내 집짓기에 함께해 오던 삼성물산의 경우, 2006년부터는 나눔 실천을 해외로 확대해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 마을 단위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공통된 문제인 식수 공급 및 위생 시설 등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 교육, 자연재해 대비 교육 등을 통해 좀 더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의 참여로 후원금을 마련하고 직접 봉사에 참여하여 대상 마을을 방문하여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등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집과 함께 인생을 만든다’

사회공헌 활동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

나는 일이니만큼 각 기관의 실무자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이 사회적 이슈나 봉사에 대한 열정, 성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파트너십에 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사회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 단순한 홍보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자 모두가 서로간의 마음을 나누는 봉사를 하다 보면, 기업 조직 내에도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익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무엇보다 한국해비타트의 활동은 삶의 보금자리인 집을 세우는 일이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재산 투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족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육을 하고 사랑을 가르치며, 가족들 간에 모여 시간을 보낸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울고 웃기도 하면서 집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CERIK